

경/영/전/략

기업의 장기적 건전성

스타의 함정

매출이나 수익처럼 수치로 환산 가능한 전통적인 직원평가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장기적인 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스타급 직원들은 부하직원들의 발전을 돕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cKinsey Quarterly (2012. 9)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1) 단기 성과에 따라 직원을 다루는 나쁜 습관을 근절하라. 2) 조직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줘라. 3) 장기적인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지만 단순한 지표를 제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장기적 건전성과 성과

McKinsey Quarterly는 또 건전성과 성과 간의 균형은 기업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건전성이 성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일부 기업들은 건전성 기여도와 성과 기여도를 똑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직원들에게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기적 성과에 치우쳤던 CEO라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사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조직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 김진완 수석연구원



‘가을의 시인’ 이자 ‘고독의 시인’ 김 현 승(1913.4~1975.4, 탄생 100주년)

대표 작품 : 플라타너스, 가을의 기도 등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 플라타너스 /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금/융/외/환

미달러화 단기 전망

미달러 강세 지속

미달러가 올해 들어 연일 강세다.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하는 Dollar Index(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승하면 강세)에 따르면 연초 79에서 3월말 83으로 상승하면서 10주 연속 상승랠리를 보였다. 작년 4분기 동안 1,132원에서 1,063원으로 69원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올해 1분기에는 63원이나 상승하였다.

미달러는 2분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2013.4.3)는 2분기 미국경제는 소비지출 증가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타임즈(2013.3.26)는 지난달 24일 키프러스 구제금융이 합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J.P Morgan, Goldman Sach 등 13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분기 엔화약세 지속을 전망하며 올해 초 86엔이던 대미달러 환율이 97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

■ ■ ■

반면 미달러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미연방준비제도의 발표와 같이 매월 850억달러의 자산 매입 등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됨으로써 미달러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3월 민간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부진을 근거로 미국경제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일시적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백충기 수석연구원



[멘탈붕괴 방지 건배사]

(선창) 멘붕

(다같이) 노

(선창) 힐링

(다같이) 예스 예스 예스

경/제/일/반

재고율 지수 하락

재고와 경기변동

경기변동은 생산, 출하, 재고의 변화로 파악한다. 생산이 대표적인 경기지표지만 생산된 제품이 실제로 출하되는지 아니면 재고로 쌓이는지가 경기변동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재고율 지수(=재고지수/출하지수)의 변화는 경기국면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재고율 지수가 하락하면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고율 지수는 불변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제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9월 109.7에서 2013년 1월 116.0까지 상승했던 제조업 재고율 지수가 2월 들어 114.1로 하락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동지수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와 재고율 지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여부의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내 제조업의 재고율 지수 변화

(2010=100)

구 분	2012.9월	2012.10월	2012.11월	2012.12월	2013.1월	2013.2월
전 체	109.7	110.2	113.5	113.7	116.0	114.1
대기업	113.0	113.7	118.9	118.4	120.2	117.6
중소기업	102.9	106.7	105.9	105.4	107.5	107.6

※ 주 : 재고율지수 = (계절조정 재고지수 / 계절조정 출하지수) × 100

• 자료 : 통계청

| 김성주 부소장